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8. 11.(수)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044-203-3157)

첨단기술로 동계 국가대표 훈련과 경기력 향상 지원 - 평창 슬라이딩센터에 음양압 인공 환경, 세계 경기장 가상현실 구현 시설 설치 -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훈련장인 평창 슬라이딩센터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 환경 구현 챔버*와 가상현실 모의훈련시설(시뮬레이터)이 설치됐다.

* 챔버(Chamber): 공기압 조절(음·양압)을 통해 다목적 훈련이 가능한 밀폐 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2018년부터 종목별 특성에 맞는 선수와 경기·훈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하계 각 1개 종목씩을 지원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 봅슬레이·스켈레톤은 한국정보공학(주)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 축구는 포항공과대학교와 대한축구협회를 주관 연구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사업 지원 개요 >

구분	종목	주관기관	개발 내용 및 범위
하계	축구	포항공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신체정보 수집(sensing) ○ 경기/훈련 데이터 분석 및 지도(코칭) 플랫폼 제공 ○ 경기 전술·전략 활용 데이터 제공 등 ○ 디지털 기반 선수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동계	봅슬레이·스켈레톤	한국정보공학(주)	

연구 4년 차인 올해, 한국정보공학(주) 연합체(컨소시엄)*는 음·양압 인공 환경을 구현한 챔버와 가상현실 모의훈련시설을 개발했다. 챔버에서는 공기압 조절 기능의 음압과 고농도 산소 호흡 기능의 양압을 조정해 고지대 적응과 신체 회복 등을 훈련할 수 있다. 음·양압 공용 챔버를 봅슬레이·스켈레톤 훈련에 사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이다.

* 한국정보공학(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스포츠문화산업협회, (주)알앤디비

가상현실 모의훈련시설에서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해 전 세계 경기장 10여 곳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모의훈련 환경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지훈련이 어려운 우리 국가대표단은 세계 최초의 봅슬레이 가상현실 구현 시설을 통해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진천선수촌에는 선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실내 스타트 훈련장을 설치했다. 스타트 훈련장에서는 감지기(센서)와 영상으로 통합 데이터를 취합해 선수 자세, 동작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썰매 러너(날) 표면 가공 장치를 기계식, 자동식으로 미세 가공하는 장치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9월 초부터 국가대표 훈련에 적용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은 음·양압 공용 챔버와 가상현실 모의 훈련시설을 9월 초부터 베이징동계올림픽 국가대표단에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가대표를 비롯한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과학화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김지은 사무관(044-203-3157),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기반팀 유은철 팀장(02-410-1551), 한주리 주임(02-410-155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p>
---	--